

캐나다 교민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Korean Resident's Identity of Housing in Canada

박 선 희*
Park, Su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on housing in Canada.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Korean styled decorations were the most possessions to express their identity, while the possession degrees of Korean household goods and Korean style furniture were relatively low. An electric mat and a low table were frequently being used in their home. The using degree of these goo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period in Canada. Almost Korean-Canadian tended to have a style of sitting on the floor in the behavior of sewing, ironing, entertaining, watching the T.V. This behavior styl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amily income, houses style, the house ownership.

Keywords : Identity, Korean Style Furniture

I. 서 론

1. 연구목적

주거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보면 우선 알트만(Altman and Chemer, 1980)은 주택과 실내공간간의 장식을 통해 나타난 생활상이 비언어적 행위에 근거하여 보여주는 의사전달도구이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투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허먼(Hummon, 1989)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택을 자기 표현의 매개물로 이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재외교포의 주거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공간적,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은 많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재외교포의 경우 타문화 속의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의 틀을 벗어나 생활할 수는 없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재외교포의 주거에는 한국 민족 문화의 유지와 타문화와의 동화와 갈등이 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이현정, 1992).

이러한 재외교포의 생활양식에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한국적인 생활양식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측면이 재외교포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다. 고국에 대한 재외교포의 문화적 정체감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국의 가구나 물품을 소유하고 부분적인 좌식생활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음은 이미 쿠퍼가 지적하였다¹⁾. 한국인의 재외교포에 대한 주거아이덴티티 연구는 그동안 미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정, 1992)만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사회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서 미국과는 다른 캐나다 교민의 주거생활에 일반적으로 표현된 한국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적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거주자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주거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석 유목은 한국 고가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북대학교 해외파견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원형인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주변에서 의미 있는 물리적인 형태나 상징물을 선택하게 된다.(Cooper, 1977)

및 실내장식물품 보유현황, 한국적 생활물품 사용여부, 좌식행위, 좌식생활에 대한 것이며 전체적인 설문 내용은 미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이현정(1992)의 설문(신뢰도.89)을 참조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본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이 조사가 독창성의 과제라기 보다는 해외 거주 교민의 주거생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차이점을 알아본다는 기초적 연구 조사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대상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²⁾ 거주 교민이었으며, 2001년 10월에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한인 주소록을 통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50부를 우편 발송을 통해 추가 배부하였으며 20부는 개별적으로 배부하였다. 그러나 총 수집된 설문지는 102부(37.8%)로 이중 98부³⁾가 본 조사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자료는 SAS Program을 통하여 빈도, 백분율, F검증, X², 사후검증, 상관관계 등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II. 선행 연구

바이스너(Weisner et al, 1981)는 가족들이 주거를 계획하고 꾸미고 생활하는 방식에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며, 따라서 주거를 통해 그들의 교육정도, 소득, 취미, 미적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쉬와 키(Ruesch and Kees, 1987)는 생활양식과 물리적 환경인 주거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식별성은 주택 내부공간에서 보다 뚜렷이 부각되며, 벨크(B.Wallendorf and Arnold, 1988)는 소유물이 그의 소득을 반영할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사달라 등(Sadalla et al, 1987)은 주택을 자아-표현적 역할수행에 사용되는 도구로 보고 사람들은 역할수행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며 소유자의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해 주택을 장식하고 변경

한다는 가정 하에 거주자와 관찰자의 주택속성에 관한 아이덴티티 표현과 이에 대한 추론의 일치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는데 주택소유자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주거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매우 잘 표현한다고 응답하였다. 주택과 소유물품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로 시크젠트미하이리 등(Csikszentmihayli and Rochberg-Halton, 1981)은 가정 구성물에 쏟은 정서적 의미의 양과 가족 생활의 정서적 분위기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즉 가정내의 환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들은 가족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스타일에 있어서 더 따뜻하고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 1992, 재인용). 허몬(Hummon, 1989)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노인들의 경우 특히 과거에 대한 기념품이나 과거와의 연계 역할로서 주택 및 주택물품들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즉 노인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자신의 주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므로 노인들이 주택 내부환경을 '개성화' 하는 것은 자아표현뿐 아니라 자아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로우만(Lauman, 1989)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실을 치장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속성과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데쯔너 등(Detzner et al, 1991)도 노인들과 주거 소유물품과의 연구에서 특히 노인들에게는 낡은 사진이나 중요한 서류, 특별한 선물, 수집품과 취미용품 등 과거의 추억이나 경험과 연루된 물건들이 큰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상실될 경우 삶의 연속성을 지탱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영주(1992)는 한국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추억과 경험이 연루된 장식물품이 거주자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적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의 거주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74.4%), 이민년수는 5년 이하(62.2%)가 많았다. 교민들의 직업은 이현정의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교민들처럼 판매직(30.6%)이 가

2)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주도시인 빅토리아를 포함하여 밴쿠버,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씨리, 델타,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리치몬드, 화이트락, 코퀴틀람, 포트무디, 메플릿지 등의 지역을 포함한 캐나다 서부의 대표적 주이며 한국 교민들은 버나비와 코퀴틀람에 많이 거주하며 그 외의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다.
3) 본 표집수가 통계적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표 1. 거주자 특성

문항	구분	N	%	문항	구분	N	%			
나이	40세이하	9	10.98	이민년수	5년이하	61	62.24			
	41세~60세이하	61	74.39		6년~10년이하	18	18.37			
	61세이상	12	14.63		11년이상	19	19.39			
	전체	82	100		전체	98	100			
직업	전문직	21	21.43	수입	\$20,000미만	21	23.86			
	관리직	19	19.39					\$20,000 - \$69,999	47	53.41
	사무직	4	4.08							
	판매	30	30.61							
	생산직	2	2.04							
	기타	22	22.45		전체	88	100			
	전체	98	100							

무응답: 제외

표 2. 주택 유형 및 주택 소유상태 문항

문항	구분	N	%	문항	구분	N	%
주택유형	단독주택	43	45.74	주택 소유상태	자가	57	58.16
	연립, 타운하우스	18	19.15		월세	29	29.59
	공동주택	30	31.91		연도별 임대	9	9.18
	듀플렉스등 다세대주택	3	3.19		기타	3	3.06
	전체	94	100		전체	98	100

장 많았다. 소득은 77.3%가 7만불 이하이며 특히 2만불 이하가 23.9%나 되어 캐나다 국민의 평균 소득인 6만8천불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공동주택(31.9%), 연립주택 및 타운하우스(19.1%) 순이었다. 주택 소유상태는 자가 58.2%, 월세가 29.6%로 나타나 비교적 소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2. 조사대상 주거의 실내 마감

조사 대상자 주택의 내부공간 바닥 재료는 침실(86%), 거실(81%) 등의 공간에는 카펫가, 화장실(45%), 부엌(41%), 식당(31%) 등의 공간에는 플라스틱 재료가 많이 사용되어 있었다. 목재 마감기 거실(15%), 침실(10%)의 경우 카펫트 다음으로, 그리고 식당(21%), 부엌(18%) 등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추세로 보아 친 환경적 재료에 대한 선호 경향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주거아이덴티티 지표별 표현의 일반적 양상

1) 한국 고가구 및 실내장식품품 보유현황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한국 물품을 가구, 생활용품, 장식용품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장식용품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이 35.2%, 가구보유는 23.0%로 나타났다. 장식용품 중에는 도자기, 동양화, 서화, 병풍, 한국인형, 공예품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용품 중에는 돗자리, 쏯대, 방석, 보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중에는 사방탁자, 문갑,반다지, 삼층장, 약장 등의 순으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 경향은 빈도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현정 조사의 재미교포 결과와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적 생활물품의 사용행위

한국적 생활물품으로 특히 좌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네가지 물품으로서 전기장판, 베개, 방석, 상에 대한 사용여부 및 사용공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4) Statistics Canada,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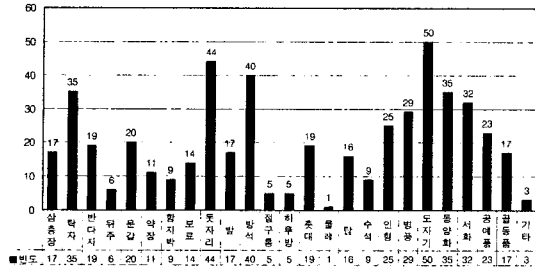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물품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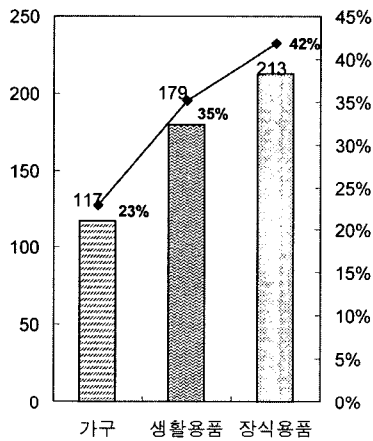


그림 2. 분류별 물품보유비율

결과 베개와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게(각 72%, 52%) 나타났다. 전기장판은 63%, 상(교자상 등)은 7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의 사용은 이현정의 재미교포 조사 결과보다 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기후적 요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사용이유가 아플 때나 온돌에 대한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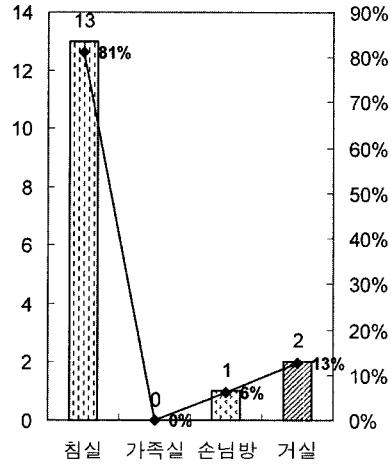


그림 3. 전기장판과 사용공간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재미교포들과 같게 나타났다.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베개는 주로 침실에서 방식은 거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사용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손님접대와 차탁자 이용이었으며 그 사용장소도 거실이 가장 높게(71%) 나타났다.

3) 일상적 좌식행위와 좌식생활

실내에서의 신발 착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98%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84%가 문간 입구에 바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매트를 이용하여(58%) 영역 구분을 해 놓았다.

전반적인 좌식행위의 빈도는 다림질과 빨래정돈, 바느질, 김치담그기, 놀이, 가족모임, TV시청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상적 좌식행위

문항	구분	N	%	구분	N	%
좌식하는 행위	다림질	54	14.14	독서	14	3.66
	빨래정돈	54	14.14	가계부정리	9	2.36
	바느질	51	13.35	친한친구 접대	23	6.02
	화장	13	3.40	가족모임	24	6.28
	손빨래	16	4.19	휴식	24	6.28
	김치담그기	41	10.73	놀이	34	8.90
	TV 시청	24	6.28	기타	1	0.26
				전체	3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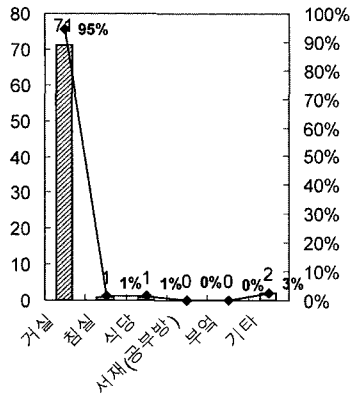


그림 4. 상과 사용공간비율

4.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양상

1) 한국물품 보유현황의 차이

캐나다 교민들의 소득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 차이는 유의확률 0.006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립·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간에 한국물품 보유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 차이는 유의확률 0.0952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물품 사용행위

나이에 따른 한국물품 사용행위를 보기 위하여 조

사대상자를 4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불과 요의 사용여부 ($P < .001$), 전기장판 사용여부 ($P < .05$), 방석사용여부 ($P < .05$)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5>.

특히 전기장판, 방석, 상의 사용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년수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전기장판 사용에서만 유의미하게 ($P < .05$)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이불과 요의 사용에서만 유의미하게 ($P < .05$)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이불과 요, 배개사용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20,000~\$69,999인 그룹과 \$70,000이상인 그룹간에 한국물품 사용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한국물품사용행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한국물품 사용행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0959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상태가 자가, 월세, 연도별 임대와 기타의 그룹간에 한국물품 사용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좌식행위의 차이

소득에 따른 좌식행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0245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70,000 미만인 그룹과 \$70,000 이상인 그룹간에 좌

표 4. 소득, 주택유형, 주택 소유상태 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의 차이

요인	구분	N	Mean	SD	사후검증	F	P-value
소득	\$20,000미만	21	4.19	3.53	A	0.69	0.5029
	\$20,000 - \$69,999	47	5.51	4.77	A		
	\$70,000 이상	20	5.35	4.06	A		
주택유형	단독주택	43	5.65	4.14	A B	3.87	0.006***
	연립, 타운하우스	18	2.83	1.98	A		
	공동주택	30	4.50	4.23	A		
	듀플렉스 등 다세대주택	3	11.67	8.02	B		
주택소유상태	자가	57	5.84	4.68	A	2.18	0.0952*
	월세	29	3.83	3.55	A		
	연도별 임대	9	3.78	2.95	A		
	기타	3	2.33	0.58	A		

*: $P < 0.1$ ***: $P < 0.01$

표 5. 나이와 한국물품사용행위의 관계

문항	구분	40세 이하	41세~60세 이하	61세 이상	χ ² (df) p
		N (%)	N (%)	N (%)	
이불과 요의 사용여부	있다	4 (4.94)	3 (3.70)	5 (6.17)	17.70(2) 0.0001***
	없다	5 (6.17)	57 (70.37)	7 (8.64)	
	전체	9 (11.11)	60 (74.07)	12(14.81)	
전기장판 사용여부	있다	9 (10.98)	42 (51.22)	5 (6.10)	8.11(2) 0.0173*
	없다	0 (0.00)	19 (23.17)	7 (8.54)	
	전체	9(10.98)	61(74.39)	12(14.63)	
베개(한국식) 사용여부	있다	2 (2.44)	18 (21.95)	3 (3.66)	0.27(2) 0.8933
	없다	7 (8.54)	43 (52.44)	9 (10.98)	
	전체	9(10.98)	61(74.39)	12(14.63)	
방석(한국식) 사용여부	있다	1 (1.27)	32 (40.51)	3 (3.80)	8.51(2) 0.0142*
	없다	8 (10.13)	26 (32.91)	9 (11.39)	
	전체	9(11.39)	58(73.42)	12(15.19)	
상(교자상, 반상) 사용여부	있다	8 (9.76)	47 (57.32)	7 (8.54)	2.87(2) 0.2380
	없다	1 (1.22)	14 (17.07)	5 (6.10)	
	전체	9(10.98)	61(74.39)	12(14.63)	

*: P<0.1 ***: P<0.01

표 6. 소득, 주택유형,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한국물품 사용행위의 차이

요인	구분	N	Mean	SD	사후검증	F	P-value
소득	\$20,000미만	21	2.14	1.20	A B	4.14	0.0193**
	\$20,000 - \$69,999	47	2.62	1.09	A		
	\$70,000 이상	20	1.80	1.06	B		
주택유형	단독주택	43	2.09	1.23	A	0.63	0.6398
	연립, 타운하우스	18	2.28	1.13	A		
	공동주택	30	2.30	1.09	A		
	듀플렉스등 다세대주택	3	3.00	0.00	A		
주택소유 상태	자가	57	2.12	1.08	A	2.18	0.0959*
	월세	29	2.55	1.24	A		
	연도별 임대	9	2.33	1.12	A		
	기타	3	1.00	0.00	B		

*: P<0.1 ***: P<0.01

식행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른 좌식행위의 차이는 유의확률 0.0041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좌식행위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소유가 자가인 그룹과 기타인 그룹 사이에 좌식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좌식생활의 차이

소득에 따른 좌식생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0109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70,000미만인 그룹과 \$70,000이상인 그룹간에 좌식행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른 좌식생활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좌식생활의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거아이덴티티 표현 지표간의 상관관계

표 7. 소득, 주택유형,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좌식행위의 차이

요 인	구 분	N	Mean	SD	사후검증	F	P-value
소득	\$20,000 미만	21	4.86	3.35	A	3.88	0.0245**
	\$20,000 - \$69,999	47	4.02	3.14	A		
	\$70,000 이상	20	2.35	1.84	B		
주택유형	단독주택	43	2.58	2.53	A	4.12	0.0041***
	연립, 타운하우스	18	4.39	3.07	A		
	공동주택	30	5.13	3.20	A		
	듀플렉스등 다세대주택	3	5.00	2.65	A		
주택소유 상태	자가	57	2.89	2.83	A	5.00	0.0029***
	월세	29	4.76	2.43	A B		
	연도별 임대	9	5.22	3.49	A B		
	기타	3	7.00	5.20	B		

표 8. 소득, 주택유형,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좌식생활의 차이

요 인	구 분	N	Mean	SD	사후검증	F	P-value
소득	\$20,000미만	21	6.95	3.83	A	4.76	0.0109**
	\$20,000 - \$69,999	47	6.60	3.77	A		
	\$70,000 이상	20	3.90	2.85	B		
주택유형	단독주택	43	4.49	3.51		3.56	0.0096***
	연립, 타운하우스	18	6.67	3.41	A		
	공동주택	30	7.40	3.76	A		
	듀플렉스등 다세대주택	3	8.00	2.65	A		
주택소유 상태	자가	57	4.89	3.57	A	3.84	0.0122**
	월세	29	7.31	3.21	A		
	연도별 임대	9	7.33	4.24	A		
	기타	3	8.00	5.12	A		

*: P<0.1 ***: P<0.01

표 9. 한국물품 보유현황, 한국물품 사용행위, 좌식행위간의 상관관계

	N	한국물품 보유현황	한국물품 사용행위	좌식행위	좌식생활
		r (p)	r (p)	r (p)	r (p)
한국물품 사용행위	101	0.34*** (0.0006)	1.00 (0.00)		
좌식행위	101	0.15 (0.1386)	0.34*** (0.0005)	1.00 (0.00)	
좌식생활	101	0.22** (0.0250)	0.60*** (0.0001)	0.95*** (0.0001)	1.00 (0.00)

*: P<0.1 ***: P<0.01

한국물품 보유현황, 한국물품 사용행위, 좌식행위, 좌식생활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물품 보유현황은 한국물품 사용행위와 상관계수 0.34, 좌식생활과는 0.22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물품 사용행위는 좌식행위와 0.34, 좌식생활과

0.60, 좌식행위는 좌식생활과 0.95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좌식행위와 한국물품 보유현황(0.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물품 보유가 많을수록 그 사용이

표 10. 가정의 나이와 이민년수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 한국물품 사용행위, 좌식행위간의 상관관계

	N	한국물품 보유현황	한국물품 사용행위	좌식행위	좌식생활
		r (p)	r (p)	r (p)	r (p)
가정의 나이	91	0.12 (0.2413)	0.02 (0.8435)	0.14 (0.1936)	0.12 (0.2645)
이민년수	98	-0.03 (0.8001)	-0.12 (0.2522)	0.05 (0.6599)	0.01 (0.9333)



그림 5. K씨택 단독주택



그림 9. K씨택 가족실; 좌탁자가 놓여 있으며 자녀들이 여기서 책을 보고 놀기도 한다.



그림 6. K씨택 거실; 반단자와 동양화가 장식되어 있다.



그림 10. 타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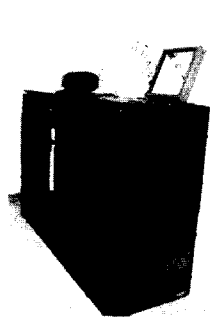


그림 7. K씨 조모가 사용한 반단자와 위에 놓인 한국 장식품



그림 8. 문간 앞에 벗어 놓은 신발 모습



그림 11. 다세대주택; 위와 아래 및 담장 중심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두 세대는 듀플렉스이고 형태에 따라 3, 4세대 주택까지 있음

많아지며 이것은 결국 좌식행위나 좌식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

정의 나이, 이민년수는 주거아이덴티티 표현 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그림 12. 공동주택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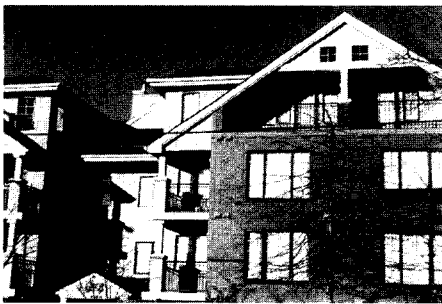


그림 13. 공동주택; 소유권에 따라 명칭이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먼트로 구분된다.

타났다. 이것은 이현정(1992)의 미국교민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물품의 보유가 많아진 경향과는 반대이나 이민년수와 한국물품 보유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와는 같았다.

IV. 요약 및 결론

캐나다 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주거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한국적 물품의 보유 현황과 한국적 물품의 사용행위, 좌식행위 및 좌식생활 등을 파악하고, 거주자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주거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는 보유물품은 장식용품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이 35.2%, 가구보유는

23.0%로 나타났다. 장식용품 중에는 특히 도자기, 동양화, 서화, 병풍, 한국인형, 공예품 등의 순으로, 생활용품 중에는 돛자리, 촛대, 방석, 보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중에는 사방탁자, 문갑, 반다지, 삼층장, 약장 등의 순으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문갑이 사방탁자 보다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양상을 보면 연립,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간에 한국물품 보유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한국물품 보유현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적 생활물품의 사용은 전기장판(63%)과 상(75%)의 사용이 많은 데에 비하여 베개와 방석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전기장판은 미국 교민도 높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특히 중장년층의 기후에 대한 부적응과 온도에 대한 신체 접촉의 그리움이 교차된 것이 그 선호 이유로 보인다. 또한 거실에서의 상의 이용이 높은 것도 이에 대한 문화적 관습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양상 중 한국적 물품 사용행위에서는 이불과 요의 사용여부($P<.001$), 전기장판 사용여부($P<.05$), 방석 사용여부($P<.05$)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민년수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전기장판 사용에서만 유의미하게($P<.05$)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이불과 요의 사용에서만 유의미하게($P<.05$)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한국물품사용행위는 이불과 요, 베개사용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주택유형별 한국물품사용행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상태에 따른 한국물품 사용행위도 유의한(10%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인 좌식행위의 빈도는 다림질과 빨래 정돈, 마느질, 김치담그기, 놀이, 가족모임, TV시청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민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전통적 좌식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은 변경하기 어려운 문화적 관습과 한국적 주거생활의 표현이라고 보겠다.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양상을 보면 소득에 따른 좌식행위와 좌식생활의 차이 모두 소득, 주택유형, 주

택 소유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아이덴티티 표현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물품 보유현황은 한국물품 사용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국물품 사용행위는 좌식행위와 좌식생활, 좌식행위는 좌식생활과 모두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좌식행위와 한국물품 보유현황(0.15)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물품 보유가 많을수록 그 사용이 많아지며 이것은 결국 좌식행위나 좌식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교민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적 물품 보유 유형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보유 빈도와 사용행위는 차이가 있었으며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자료 분석에 대한 시차와 아울러 변인 분석의 기본 틀에 대한 차이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교민과 캐나다 교민들의 개인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거주 교민들은 미국 교민들보다 빈도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보유한 장식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가구 등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부분적 좌식행위와 신발 착용이라는 문화

적 속성을 지닌 좌식생활로서의 주거행위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이라는 동질적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김영주(1992),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행신(1989), 주거공간에 있어서 영역성, 프라이버시와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59-69.
3. 이현정(1992), 재미교포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주거문화연구회역(1994),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5. 하재명(1989),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Altman, I. and M. Chemers(1980),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alif.: Brooks/Cole.
7. Belk, R.W(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September, 139-168.
8. Detzner, D.F.(1991), The Meaning of Home and Possessions to Elderly Public Housing residents Displaced by Fire. Housing and Society, 18(2), 3-12.
9. Humon, C.J.(1989), House, Home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Housing, Culture, and Desig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0. Sadalla, E.K., B. vershure and J. Burough(1987), Identity symbolism in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19(5). 569-587.
11. Weisner, T.S. and J.C. Weibel(1981), Home Environments and Family Lifestyle in California. Environment and Behavior, 13(4), 417-460.